

- ① 저들을 증인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 ② 저들의 증거를 상대해서는 안 된다.
- ③ 저들에게 어떤 비밀은 알리지 마라.
- ④ 저들을 고아의 후견인으로 삼지 마라.
- ⑤ 저들에게 가난한 자를 위한 성금을 관리하게 마라.
- ⑥ 저들과 여행길에 오르지 마라.

이상에서 적어도 예수 이후 마르코시대에 ‘암 하 아레츠’는 사회 계층적 개념으로 멸시의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라오스보다는 오클로스에서 나타난 민중과 가까운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암 하 아레츠가 오클로스를 지칭학적으로 상징한 것이 바로 갈릴래아이다. “이방인의 갈릴래아” 또는 “갈릴래아, 갈릴래아, 너는 율법을 미워하고” 운운은 장(章)을 따로해서 밝힐 또 하나의 중요한 항목인데, 여기서는 마르코가 당시의 부정적 의미로만 사용된 오클로스라는 말을 골라서 사용하고 또, 그것의 장(場)을 갈릴래아로 한 것은 분명하게 사회적으로 본 피해계층을 나타내려는 의도에서였다는 사실만 지적하고 넘어가기로 하겠다.

7. 종 합

이상에서 마르코복음을 중심으로 본 예수와 민중, 예수와 오클로스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르코는 의식적으로 라오스를 피하고 오클로스로서 사용함으로써 민족 또는 종교적 계층 분류에 반해서 사회사적 계층성을 나타냈다.

둘째, 오클로스를 절대로 고정적으로 질화(質化)하지 않고 상관성

에서 규정하므로 유동적이다. 저들을 결코 미화하지 않는다.

셋째, 오클로스는 결코 어떤 목적 밑에서 스스로 세력화하려는 대중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과 갈구를 지닌 자신만의 세계를 갖고 있다. 이 말은 저들이 밖에서 규정할 수 없고, 자신 안에 고유한 현실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이 점에서 율법을 이데올로기화해서 저들을 동원하려던 바리사이파에 대한 정면충돌의 설화는 의미가 크다.

넷째, 예수는 저들을 규합하거나 또 어떤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 능동적으로 저들에게 접근하지 않았고 오직 저들의 요청에 응했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수동적 혹은 그들과 일치하는 입장에 섰지, 저들의 지배자, 라삐 또는 수령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그것은 복음서에서 예수가 오클로스와 단·속(斷·續)의 관계로 서술된 것에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마르코의 오클로스는 프롤레타리아도 아니며, 민족의 실체로서의 민족이나 민주체제의 일원인 People과 직결시킬 수도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예수가 저들에게 알린 것은 한마디로 하면 ‘하느님 나라의 도래’이다. 마르코가 예수의 설교를 그렇게 요약한 것(1, 15)은 의미심장하다. ‘하느님의 나라가 곧 온다! 오고 있다!’라는 이 종말론적 선언은 낡은 세계의 종말과 더불어 개혁의 때를 알려줌으로 흠여진 이 오클로스에게 새로운 희망과 변화의 길을 열어주었다. 마르코가 나타낸 예수는 바로 새 세계의 도래를 확신했기에 그의 오클로스와 더불어 행태가 자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민중은 새 세계를 기다린다. 지금 그들은 고난의 장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는 그 나라의 도래의 전선에서 민중과 더불어 싸웠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메시아이다. 이것은 적어도 마르코의 메시아관의 일면임에 틀림없다.

■ 『현존』 제106호, 1979년 11월호에 수록.